

# 어리석은 착오는 비참한 종말로 이어진다

최근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로 답습해온 과거와 견주지 못할만큼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미핵동력항공모함까지 참가한 남조선미군력해상훈련, 실질을 가정한 《호국훈관》 등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징후들이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면서 조선훈관도정세는 일촉즉발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겨레와 세인은 조선반도정세가 날로 격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현 북남관계가 왜 좀처럼 악화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긴장한 정세가 지속되고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심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슨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반공화국전쟁동태만 험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국제관계에서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장 극악무도한것이다.

주권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위협하고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있으며 그 침략적성과 수단, 방법이 더욱 횡포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여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침략의 돌격대, 전쟁하수

인으로 나선것이 다른인력대 남조선보수세력이다. 그 바통을 이어 윤석열역적패당도 동족에 대한 체질적거부감, 적대감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집권하기 전부터 동족을 《주적》으로 몰아 《선제타격》하겠다고 떠벌이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아서도 극심한 민생은 내내 개개고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전쟁연습과 첨단무장장비의 구매에만 눈이 멀게 돌아치고있다.

남조선에서 역대 보수《정권》들치고 동족과의 대결책동에 나서지 않은적이 없었던가?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전쟁연습과 첨단무장장비를 찾는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는 없었다.

미국의 하수인노릇이나 하는자들이 과연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해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규합할수밖에 없는것은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를 자인한다는것이고 더 나아가는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립중이다.

미국내에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총파산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한란이 울려나오고있는때에 유독 윤석열역적패당만이 그 누구를 《선제타격》한다고 몰며벌출뎐뎐 날뛰고있으니 이아말로 대제도 분간할줄 모르는 어리석은 착오이고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로 악몽에 시달리는자들의 헛소리, 파멸에 걸추하는 패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인것이다.

총파산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남관계를 완전결단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위협천만한 상태로 몰아가는것은 외

세를 등에 업고 심각한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는 가련한 몸부림, 핵강국앞에서 하루강아지처럼 설쳐대는 자살적망동이다.

하기에 남조선민심도 윤석열역적패당이 권력을 거머쥐고있는한 북남관계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꼬물꼬물도 가지지 않지만 동족과의 전쟁대결은 자멸밖에 가져올것이 없다고 하면서 반전평화, 반윤석열, 반보수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어리석은 착오는 비참한 종말로 이어지거마련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자멸에 재촉하고 전쟁하수인배

그를 실행하기 위해 군부호전세력은 최근 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인 《페트리오트》사이의 호상운명성을 높이기 위한 《싸드》의 성능개량을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으며 그를 구실로 남조선에 《싸드》를 추가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을 위한

남조선호전세력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와 반에도 불구하고 고고도요격미사일체계인 《싸드》를 추가배치하기 위해 회색하고있다.

윤석열역도부터가 이미전부터 북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며 주변에서 제기되는 비난에 관개없이 《싸드》의 추가배치를 밀고나갈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어왔으며

이런 속에서 그 누구의 《핵 및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역적패당이 벌여놓은 《싸드》의 성능개량과 추가배치는 가혹이나 첨예한 정세를 격화시키며 불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것과 같은 무모한 망동,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마저 완전히 파괴하려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로 되는것이다.

《싸드》를 추가배치하려고 회색하는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일환인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

미국이 본토에 대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목적에 전략적지역들에 《싸드》를 배비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남조선에 배치한 《싸드》의 성능개량을 먼저 벌여놓고있는것은 조선반도를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전초기지, 전략기지, 출발점으로 주목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호전세력이 상건의

각본에 따라 《싸드》의 성능개량과 추가배치에 몰두하는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기지로 더욱 내밀고 전정태도복, 하수인으로 나서겠다는 흉심의 발로인것이다.

나아가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더러운 야망을 기어 실현해보자는 흉악한 본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막강한 군사적강세에 비한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궁여지책, 상건의 각본에 따라 칼 물고 뿔뿔이를 하는 꼭두각시들의 만용에 불과하다.

최강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은 짓거리의 종말의 구렁렁이를 더 깊숙이 파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승렬



## 북은 겨는 합동군사연습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세상에 죽어도 못고치는 병이 있다면 아마도 윤석열역적패당의 동족대결병일것이다.

얼마전 남조선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도이쉴란드를 행각하면서 서 부린 추태를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이자는 《도이쉴란드통일의 날 32주년 기념행사》참가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윤석열역적패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걸하였는가 하면 《동맹국》들과 잘 협력하여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냈다. 지어 그 무슨 《소중환 경험과 교훈》을 떠들며 《흡수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극악한 대결본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헤메비는 일간망동의 어리석은 추태라 하겠다.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라는것이 이미 10여년전 남조선 각계와 세인으로부터 《실현불가능한 대결문서》, 《흡수통일문서》로 지탄받고 력사의 쓰레기

통에 던져졌던 리명박역적의 《비핵, 개방, 3 000》의 북사판에 불과하다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역적의 《담대한 구상》이 나오자마자 세상사람들로부터 《담대한 망상》, 《백년, 천년이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라는 비난과 조소속에 빈종이장이나 다름없이 된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역스러운 폐기품을 머나먼 다른 나라까지 들고 가서 광고해낸것을 보면 총파산의 운명에 처한 이들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하나 지행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 있음은 알수 있다.

그런다고 다 죽은 《담대한 구상》이 살아나기라도 하겠는가. 어리석은것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해외행각기간 통일부 장관이라는자는 이 나라 언론들앞에서 그 무슨 《우리》니, 《도발》이니 하며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인 군사적조치들에 대해 시비중상하는 추태도 부리었다. 이것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줘야 하는것을 교묘한 술책이 아닐수 없다.

외세와 한쪽이 되어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발광적으로 벌리고 《확장적재력투입》을 떠들며 미국의 전략핵무력을 남조선과 주변수역에 끌어들이 조선훈관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정경에 몰고가고있는 호전세력이 오히려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낮가죽 두꺼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낮간지러운 소리들도 늘어놓았지만 속에는 동족을 해칠 흉심만이 가득차있다.

그가 도이쉴란드의 고위인물들을 만나 《흡수통일》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역적패당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야망은 민족의 지향과 넘쳐있는 역행하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방향을 띠고있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것은 알고 덤벼도 덤벼야 할것이다.

저들이 하나비처럼 믿고 섬기는 미국상전조자 김도원님을 못하는 상대가 바로 공화국이다.

이런 공화국을 상대로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멸행위로 된다.

통일부 장관이라는자가 역시 윤석열역적패와 한바리에 실어도 조금도 짝지 않는 역적이고 대결광이 분명하다.

이런자가 풀수없이 여기저기 돌아쳐야 할것이란 규탄과 조소뿐이다.

대양초 윤석열역적의 동족대결전쟁실현의 하수인, 사환군노릇밖에 못하는 《방통부》, 《대결부》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북을 겨는 합동군사연습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끊임없이 벌리는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책동을 조선훈관도에 불신과 대결, 군사적긴장대결을 전진위협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있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내에서는 불안과 공포감이 날로 확대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9월말 미핵동력항공모함타격집단이 남조선에 기여들고 거기에 섬나라들까지 끼여들어 미일남조선사이의 각종 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수년전 북남관계가 최악에 이르렀다.

남조선 《국회》에는 언제나 《육력국회》, 《항공국회》, 《물류국회》, 《관장관국회》, 《식물국회》, 《싸움관국회》라는 오명들이 따라다니고있다.

그것은 여야당들이 서로 모여앉지만 하면 당리당략을 위해 추악한 개싸움을 벌리기때문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여의도의 《국회》 청사를 보면 겹투사들이 싸우던 고대 로마의 원형경기장을 보는데 그렇다》고 비난하고있는가.

윤석열역적패가 집권한 이후 처음 진행된것은 이른바 《국정감사》는 더러운 정치적야욕을 위해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일만을 일삼는 남조선 《국회》의 실상을 다시 한번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첫날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윤석열역적의 무지무능으로 빚어진 《외교참사》와 외교부장관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당들이 서로 아귀다툼을 벌리다가

30분만에 중단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전 집권자에 대한 감사원서면조사문제를 놓고 야당의원들이 《국민의힘》것을 강하게 물고뜯는것으로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열렸다.

《국정감사》시작이 이 정도이니 다음 과정이 어떠했으리라는것은 너무도 뻔

하다. 부정부패의혹문제, 검찰청 사린제문제, 《안보》 및 정책문제 등 사건건건 여야당들이 서로 상대방을 걸고뜯며 싸움질을 하나하나 남조선 《국회》는 매일과 같이 아수라장, 판장판이었다.

## 《료리》는 없고 《접시》만 깬다

독도와 가까운 조선통해 상에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진행한 해상훈련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참가한것을 두고 야당이 《국대적인 친일국방행위이다》, 《체질을 상징하는 《육일기》가 다시 조선반도에 휘날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성토하자 《국민의힘》것들이 《역지스러운 친일몰이》라고 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

더우기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에 대응한다고 호들갑을 떨며 《한국형3축라격체계》의 핵심전략이라는 《현무-2C》를 발사했지만 불과 몇초정도 비행하다가 자기추진역에 떨어지고 《에이태킵스》도 가상공표를 향해 날아가던중 신호가 끊어져 사라져버리자 민심의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군의 방어망은 구멍이 송송하여 불안하다, 《한국형3축라격체계》도 무용지물이

아대며 야당에 행패질을 해댄것도 이 날에 있는 일이다.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아랑곳없이 당리당략, 권력욕에 환장되어 개싸움일만을 일삼는 정치속물들의 추악한 판투극에 대해 남조선인

론들과 각계는 《고성과 육설로 얼룩진 최악의 국정감사》, 《경제와 민생이 실종된 국정감사》, 《서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개 싸움의 진정행위이다》, 《차라리 국정감사제도를 없애는것이 낫다》 등으로 비난조소하고 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국회》의원들을 가리

며 《국회를 위한 《료리》는 한점도 못내면서 《접시》만 깬 정치인》이라고 평한 바 있다.

적중환 비유이고 비난이라고 본다. 《민생》, 《국민을 위한 정치》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인민들이야 죽든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쟁탈과 일신의 향락을 위해 피를 물고 남조선의 여야당들이고 그것들이 모여앉아 아귀다툼을 벌리는 것이 다음아닌 《국회》이다.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기대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국회》자체를 없애라. 이것이 남조선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평가이고 고이다.

본사기자 정명진

아대며 야당에 행패질을 해

도란에 빠진 민생은 아

론들과 각계는 《고성과 육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언

본사기자 정명진

민생은 민생대로 망쳐먹고 내부에 전쟁위기관 고조시키는 역적패당이 있는한 남조선은 더욱 협박한 사지관으로 내몰리게 될것은 분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남북관계가 커다란 부담으로 되고있다》. 《북을 겨는 합동군사연습때문에 불안해서 못살겠다.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윤석열역적패를 저주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에 찬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정명진

## 《구걸 쪽박》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지금 남조선사회에서 남녀로동자들의 임금격차는 26년째 세계최고이고 여성로동자고용 및 선발지수는 10년째 세계최하위이며 여성 《국회》의원비율도 세계최하위이다.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당우리가 남조선의 보수패당이며 그 바통을 이어 윤석열역적패당도 여성천시발안자, 성폭행전범자들을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요직들에 등용하였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지경에 이른것이다.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전역의 110여개 여성단체들은 역적패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기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여성단체들은 역적패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기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여성단체들은 역적패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기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성천시, 여성증오의 주범은 누구인가

여성단체들은 역적패당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여성가족부 폐지를 폐기할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경남